

## 한국 성인의 관계적 자기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방희정<sup>†</sup> 윤진영 김아영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한국인의 관계적 자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관계적 자기가 다면적이고 구성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보는 다중 자기 이론에 근거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을 측정하는 10 요인 102 문항을 선정하였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02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 상관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7요인의 총 31문항을 추출하였다. 7요인은 관계 회피, 타인 의식, 주도성, 도구적 관계, 공감-배려, 지지 받기, 관계 의존 등이다. 서울 및 수도권의 20대에서 60대 까지 남녀 649명을 대상으로 요인 구조 및 문항들의 타당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관계적 자기 척도가 남녀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남녀에 따라 관계적 자기 척도의 하위 요인별 잠재평균 분석을 한 결과, 관계적 자기가 남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관 분석 결과, 관계적 자기의 구성 요인들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양식, 자존감, 부모 및 친밀한 사람과의 애착 안정성 등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관계적 자기 척도는 관계적 자기를 단일한 요인이 아닌 다양한 구성 개념으로 정의하여, 한국인의 독특한 관계적 자기를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주요어 : 관계적 자기 척도, 관계적 자기, 다면적 구성 개념, 타당화

\*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RF-2004-074-HS0005).

이 연구를 도와준 이화여대 발달심리 연구팀에게 감사한다.

<sup>†</sup> 교신저자 :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E-mail : hjbang@ewha.ac.kr

자기(self)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달하는지는 심리학의 오랜 관심사이며 연구 주제였다. 자기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 특성과 외형적 특성 그 자체이면서, 그에 대한 자기의 관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순간성과 영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역동적 개념이다. 또한, 인간 행동의 여러 측면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지각, 타인과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Markus & Wurf, 1987). 자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으나, 중요하게 지적되는 점 중의 한 가지는 자기가 각 개인의 고유하고 독특한 것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 관계 속에서 성숙하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한다. 즉, 자기는 홀로 발현되거나 개발되기 보다는 관계적인(interpersonal) 것이라고 볼 수 있다(Baumeister, 1997).

#### 관계적 자기에 대한 이론들

일찍이 초기 자기 이론가들도 자기의 경험이 타인이나 집단, 혹은 사회의 경험을 수반함을 강조하였다. William James(1890)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평가와 관련된 '사회적인 자기(social self)'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수만큼 많은 사회적 자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후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입장에서, Cooley(1902)는 자기의 지각은 자신의 활동과 특성을 타인이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와 관련된 개인의 주관적 해석으로부터 얻어진다는 체경자기(looking glass self)를 주장하였다. 즉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상상, 그 모습에 대한 자신의 평가, 이런 평가로

부터 얻어진 감정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자기(self)와 타인(other)은 상호 배타적인 사회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Mead(1934) 역시 Cooley의 자기에 대한 사회적 조망을 더욱 확장시켜, 자기는 사회와 자신과의 사회적인 경험의 산물로서, 자기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타인에게서 비롯되며,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즉 집단은 자기의 발전에 필수적이며, 집단 내의 상호작용을 수반한 사회적 과정 속에서 자기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한편,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도 개인의 성격은 개인 스스로가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속성에 의존하므로(Fromm, 1962), 자기나 성격의 발달에 대인관계는 핵심적이고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설명한 바 있다(Sullivan, 1953; 1964). 특히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아동기 동안의 초기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기관 관계적 맥락 내에서 발달하고 존재하는 개인적 영역으로서, 개인의 여러 측면들 간에 내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인지주의적 관점에서는 자기가 어떤 구조나 체계로 기억에 표상되고 조직되느냐에 관심을 가졌다. Markus(1977, 1982)는 자기가 자기도식(self-schema)으로 표상된다고 보았다. 자기도식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측면들에 대한 평가를 반복 경험하면서 구성되는데, 자기도식이 일단 발달하게 되면 영역별로 자기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통합하게 된다고 보았다. 관계적 자기와 관련하여서는, 자기의 도식이 독립적인 사람과 의존적인 사람, 비도식적인 사람이 있어, 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Onorato와 Turner(2001)는 개인은 자신을 위계적인 수준의 범주의 일원으로 자신을 분류한다고 가정하며, 개인은 다양한 수준의 범주체계로 자신을 규정할 수 있어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범주화할 수도 있지만, 관계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수준에서 범주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사회인지 연구자들 역시 자기가 관계적이고, 영역특수적인 지식구조의 복합물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rewer와 Gardner(1996), Sedikides와 Brewer(2001)는 자기를 개인적 자기(individual self), 관계적 자기(relational self), 집합적 자기(collective self)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자기는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의 독특한 특성들에서 비롯된 자기개념으로, 타인과의 비교 과정을 거쳐 자신을 독자적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을 심리적으로 보호하고 고양시키려는 동기와 연결된 자기이다. 관계적 자기는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정의하는 것으로, 친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관계적 자기는 관계유지를 우선시하며 유의미한 타인을 보호하거나 고양시키려는 욕구와 관련된다. 한편 집합적 자기는 집단과의 동일시에서 비롯된 유대감에 기초하여, 자신을 집단에 내포시켜 정의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문화나 사회가 규정하는 처방적 의미가 내면화된 것이다(방희정과 조혜자, 2004).

비교 문화심리학자들은(Triandis, 1989; Markus 등, 1991; Cross 등, 1997, 2000) 자기해석양식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다.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서구 문화에서는 사회의 기본 요소가 개인이고, 사회적 맥락이나 대인관계, 집단 구성원과 구별되는 개인이 강조되는 반면, 집

단주의가 강조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보다는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내집단 목표 및 관계에서의 조화 추구가 중시되고, 개인은 타인과의 연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자기가 강조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Oyserman 등(2002)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각기 독립적인 개념일 수 있으며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로만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험적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같은 미국 문화권 내에서도 유럽계 미국인이 흑인이나 라틴계에 비해 더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미국인에 비해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더 집단주의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기해석양식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정신분석학자나 여성주의 심리학자들은 남성의 자기는 타인과 구별되는 독립을 근간으로 하지만, 여성은 타인과 연합하는 관계적 자기를 갖는다고 보아왔다(Erikson, 1968; Gilligan, 1982; Chodorow, 1989). 이와 관련하여 Eagly(1988)는 사회가 여성에게 관계적 역할을 맡겨왔기 때문에 더 관계적인 자기를 갖게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Cross와 Madison (1997)은 동일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여성과 남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인 압력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자기 양식은 달라진다고 보았다. 즉 대부분의 문화는 젠더화되어, 남성에게는 자율성과 독립을 허용하고, 여성에게는 양육과 돌봄,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남성은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하지만, 여성은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자기해석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성별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여성만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 역시 관계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Baumeister와 Sommer(1997)는 Cross 등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인간은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소속(belonging)의 욕구가 있고, 관계를 지향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Foels와 Tomcho(2005)는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관계적이고 집합적인 자존감을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특히, 관계를 중시하고, 관계 내의 역할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남성들도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경과 김명소(2003)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점수가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Kashima 등(1995)의 호주인, 미국인, 하와이인, 일본인, 한국인의 대상으로 자기해석 비교 연구에 의해서도, 다른 모든 문화권들에서는 관계적 자기해석에서 성차가 나타났지만, 한국인들에게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남녀가 모두 타문화에 비해 관계적으로 자기를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남녀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의 차이 때문에 그 내용은 매우 다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양사회의 개인주의적인 자기해석의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관계적 자기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며, 대인관계 맥락이나 관계 유형에 따라서 관계적인 특성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위의 자기이론들은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관계적 자기를 가정하면서 관계적 자기를 단일요인으로 측정해 왔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적 자기의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계에 따라 독특한 관계적 자기의 특성이 나타나고 경험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자기의 다양한 측면들

을 검토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을 통해 관계적 자기의 하위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 관계적 자기의 다면성

전통적으로 자기와 정체성에 관한 이론들은 자기의 결정적 속성으로 통일성과 안정성을 강조해왔지만, 최근에는 각 개인이 다양한 자기의 측면을 갖고 있으며, 자기는 맥락 의존적이라는(Rosenberg, 1997) 다중 자기의 입장을 수용하는 이론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Kihlstorm과 Cantor(1984)는 자기 표상은 상황마다 다른 신념을 표상하는 맥락 특수적 자기 개념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Markus(1977)와 Fiske와 Taylor(1991)는 자기 표상을 여러 영역의 자기 스키마로 구성된 다중적인 연합망 체계로 설명하였다. 자기의 다중적 측면을 부각하는 최근의 흐름은 관계적 자기와 관련하여 그 양상을 더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관계적 자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에 Chen, Boucher 및 Tapias(2006)는 관계적 자기의 연구들을 개괄하여, 통합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관계적 자기는 중요한 타인들에 대한 지식이 기억 속에서 연결된 자기지식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적 자기를 소유하고 있고, 특수성의 수준이 다양하다. 관계 특수적(relationship-specific) 관계적 자기는 중요한 특정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자기이며, 일반적인(generalized) 관계적 자기는 다양한 관계 맥락에서 나타나는 자기표상의 요약으로서, 가족과 있을 때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와 같은 것이다. 포괄적인(global) 관계적 자기는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를 일반화시켜 개념화

한 것이다. 결국 관계적 자기와 관련된 이론과 연구들의 주장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 이론의 논의가 각기 다른 특수성 수준에서 관계적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관계특수적 관계적 자기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Rosenberg(1997)와 Ashmore와 Jussim(1997), Andersen과 Chen(2002)의 이론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사람들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기에 반영할 뿐 아니라, 그들과 있을 때의 자신에 대한 표상을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개인이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각기 다른 관계적 자기를 가질 수 있음을 ‘타인과 있을 때의 자기(self with other)’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사람들은 같이 있는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 각기 다른 자기를 드러낸다고 설명하였다. 즉 ‘중요한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self-with specific other)’ 개념이 각기 다를 수 있고, 개인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자기 경험이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김의철과 박영신(2006)도 한국인은 관계맥락 속에서 유동성있게 변하는 자기의 특성을 갖는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일반적인 관계적 자기와 관련된 연구로는 Donahue 등(1993)과, Hstings와 James(2001), McConnell 등(2005)의 자기 개념 분화(self-concept differentiation) 이론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따른 규칙과 기대를 인식하면서 각 개인은 다양한 자기의 측면을 발달시키고,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 포괄적인 관계적 자기와 관련된 연구나 주장은 비교 문화심리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Triandis(1989), Markus 등(1991), Cross 등(1997, 2000)은 개인주의가 강조

되는 서구 문화와는 달리 집단주의가 강조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관계적이고 상호존적인 자기가 발달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Chen 등(2006)은 관계적 자기가 맥락적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다중 자기 이론이나 자기 스키마 이론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특정 시점이나 맥락에서 자기의 모든 측면들을 내어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의 다양한 측면들 중 맥락이나, 함께 하는 대상의 요구에 따라 특정 측면만이 활성화된다고 보았다. 즉 자기의 표상들 중 하위 유목만이 활성화되어 현재의 개인의 활동과 반응을 조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Markus 등(1990)은 이러한 자기를 작업 중인 자기 개념(working self-concept)으로, Baumeister(1998)는 현상적 자기(phenomenal self)로 명명한 바 있다. Higgins(1989, 1996)에 따르면 자주 활성화된 자기개념은 만성적 수준을 증가시켜 맥락단서를 덜 필요로 하게 된다. 즉 관계적 자기는 즉각적이고 맥락적인 단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활성화되는 관계적 자기는 작업 자기개념으로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또한 Chen 등(2006)은 관계적 자기의 구성이 중요한 타인과의 맥락에서 경험한 속성과 역할에 기반한 자기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과 역할은 문화적 역할 규정뿐 아니라 개별적인 예에서도 비롯된다. 예를 들어, 어린 동생과 관련된 형의 관계적 자기에는 ‘권위 인물’로서의 규범적 역할이 포함될 뿐 아니라 ‘자상한, ‘유머있는’과 같은 개별속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관계적 자기에는 정서적 요소, 목표, 동기, 자기조절 전략, 행동 전략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관계적 자기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역할, 관계, 사회적 구조, 집단들과 관련하여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단일하며 통합된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이고 구성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와 문화가 기대하는 바를 자기이행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여러 맥락 속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맺기 때문에 다면적인 관계적 자기 표상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관계적 자기는 각 개인에게 존재하는 불변의 단일한 구성물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의 구성물로서, 개인이 관계를 통해 추구하는 바에 따라 관계적 자기에는 다른 요인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인간은 모두 소속의 욕구를 가지고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이 관계적 자기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관계적 자기 검사는 관계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관계적 자기 검사에서 제외되어왔던 목표지향적인 도구성, 주도성, 파워 추구와 같은 요인들도 포함되어야 할 뿐 아니라, 관계 회피, 공의존성과 같은 역기능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관계적 자기의 다면성을 다음의 구성개념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 공감-배려

공감은 타인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이며 타인의 경험과 그것에 연관된 정서를 타인과 대리적으로 공유하는 능력이다(Kagan & Schnieder, 1987). Batson과 Oleson(1991)에 의하면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인지를 포

함하는 대리적이고 공유된 감정적 반응이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감은 친사회적 또는 이타적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 요소로 간주된다(Bukarko & Dachler, 2001) 그러나 이러한 공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지각이 중요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Batson, 1998; Eisenberg et al., 1989)에 의하면 애착 안정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조망 취하기를 용이하게 해서 공감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이 개인의 이타적 행위에 대한 동기의 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개인의 특성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정서적 대처 및 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Gilligan(1977)은 ‘배려’가 맥락-상대적(context-relative)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배려의 행위가 규칙, 표준, 원리에 근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연관된 관계들에 대해 관여하게 되는 것임을 함의한다. 결국 공감이란 개인의 특성, 상황적 맥락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 있는 관계적 자기의 한 측면으로 가정될 수 있다.

#### 관계에서의 지지 경험/관계회피

Sakellaropoulo와 Baldwin(2006)은 관계적 자기 표상과 관련해 타인 도식과 연결된 자기 도식이 합쳐진 관계적 도식을 제안하면서, 이 도식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중 하나로 친밀한 관계를 들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관계에 대해 안정적이고 애착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

사람들은 관계에서 긍정정서와 공감을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인 관계도식을 갖고 관계를 회피하려 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고자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이고, 이러한 욕구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추구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은 다양한 사회적 지지의 경험을 하게 된다. Kaplan(1977)의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며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유용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분류될 수도 있다. 정서적 지지에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등이 포함되고,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의미하며, 물질적 지지는 필요한 물건이나 도움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평가적 지지는 개인 행동에 대한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전달을 포함한다. 그러나 개인이 타인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지지적인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지지를 받는 사람의 성격, 기대, 선호, 요구 등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Collins 등(2004)에 의하면 지각된 가용적 지지(perceived available support)가 실제로 받은 지지보다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더 강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지각된 가용적 지지란 타인에 의해 사랑받고 있으며 필요할 때 타인이 언제든지 가용적임을 의미하며, 수령된 지지(received support)는 실제로 제공받은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김의철과 박영신(2006)은 원만한 대인 관계

는 한국 성인의 삶의 질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때 대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때 근본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정서적 지원이며, 정서적 지원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설명한 바 있다.

Sedikides, Green 및 Pinter(2004)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기 정의를 추구하고 위협적인 요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지지를 주는 관계는 자기 개념의 내적 일관성을 공고히 하므로 유지하려 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관계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회피하려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관계 회피가 관계단절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경험 때문에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지만, 회피하고 싶은 관계가 사회적 반응이나 의무 때문에 유지될 수도 있다(Frank & Brandstatter, 2002).

#### 타인의식과 자기제시

비교문화적으로 한국인들은 타인의식이 강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최상진(2001)은 한국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눈치, 체면, 의례성 등은 한국인들이 상황과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자기를 드러내 보일 가능성과 관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과 역할이 다르고, 따라서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표현되는 관계적 자기의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타인의식은 자기제시와 연결 지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관계적 자기가 대인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동시에 대인관계를 맺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타인 의식과 자기 제시(self presentation)는 타인과의 관계에 중요한 한 요

인이 된다. Baumeister(1997)에 따르면 자기 제시는 자신에 대한 정보나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같은 자기 제시는 종종 영향을 미치는 타인에게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보상을 얻으려는 도구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자신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주장하기 위한 표현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를 의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인의식과 자기제시는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주도성/수동성

주도성(agency)은 자기(self)의 가장 핵심적인 차원인 수행기능(executive function)을 일컫는 것으로, 개인의 행위를 주도하고 통제하며, 결정을 하는 기능을 말한다. 자기에 주도적인 수행기능이 없다면, 인간은 무력하게 사건을 관찰하거나 자신의 중요성을 폄하할 수 있다. 개인이 결정을 하고 선택하며, 자신을 책임지는 행위는 바로 개인의 주도성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기 이론들은 주도성을 자아감의 핵심 측면으로 설명해 왔다(Baumeister, 1998).

Bandura(1999)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바람직한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느낄 때 자기 행동을 주도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쓸모없다고 느낄 때에는 행동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즉 개인의 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주도성과 수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연구들은 조건에 따라 수동적인 경우보다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이 긍정적 정서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주도성은 다양한 행동양식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차원이다.

일반적으로 대인관계 양식은 주도성(agency) 차원과 친교성(communion) 차원으로 분류되어 왔다(Bakan, 1966). 특히 성별 고정관념을 다루는 연구나 이론들은 남성은 주도적이고 주장적인 데 비해, 여성은 정서적으로 표현적이며 타인을 돌보고 반응하는 특성을 띤다고 밝히면서, 이 두 차원을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원으로 고려해 왔다. 즉 주도성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주장을 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친교성은 자기를 개방하고 타인과 접촉하고 공감하며 협동하는 경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주도성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 주장적이며 자기 확장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것인 반면, 친교성은 집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기관심보다는 집단의 일치나 집단 복지를 추구하는 경향성이다. 주도성과 친교성 가운데 한 측면이 지나치게 강하게 드러나거나 반대로 너무 약할 경우 개인의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도성이 너무 강한 개인의 경우 자기주장만 하면서 관계를 해결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주도성이 지나치게 약한 경우도 수동성이나 관계무능감이 드러날 수 있다.

### 관계의존과 공의존성

관계적 자기는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또 필요한 자기의 측면이지만,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관계성을 자기의 중심에 놓고 또한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을 규정하려고 한다면 그 개인의 삶은 타인에 의해 쉽게 손상당하고 또 삶의 질은 떨어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과도한 관계의존은 관계성의 역기능적 특성을 드러내는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Bakan의 전적인 친교성(unmitigated communion)



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신을 배제한 채 타인에게만 초점을 두므로, 타인에게만 몰두하고 배려하다가 결국 자기 방치에 놓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관계 맺기 특성이 라고 할 수 있다. 관계 의존의 극단적 형태는 공의존성(codependency)라고 볼 수 있는데, Spann과 Fischer(1990)는 공의존성을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서의 역기능적 양상으로 정의하고, 자기 외적인 것의 과도한 몰두, 상대를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제하는 것, 관계를 통해 존재감을 획득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보면서, 공의존성이 자기의 상실(Jack, 1991)과도 연결된다고 보았다.

### 자기조절과 거짓자기

관계적 자기의 한 영역으로 타인과 연합하려는 개인의 목표가 자기조절을 이끌 수 있다. 이 점에서 자기조절은 중요한 타인과 관련된 목표를 성취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조절은 관계에서 오는 위험에 맞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 결과 자기조절은 종종 사람들이 실제의 자기(real self)와 자신이 이상적으로 되고 싶은 이상적 자기(ideal self)와 그들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당위적 자기(ought self)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이상적인 자기나 당위적 자기는 자기를 주도하는(self-guide)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제의 자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같은 조절의 기제로 실제의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자기침묵(self-silencing)이나 자기기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듯 관계적 자기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지만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적일 경우, 사회적으로 강요된 가치의 조건에서 살아가려고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능력

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Rogers, 1961). 이와 관련하여 Harter(1997)는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지 않고 타인들의 견해를 혼합해 거짓자기(false self)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이 중요한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타인들이 보고 듣기 원하는 것만을 표현할 수 있음도 지적되어 왔다.

### 파워

파워는 공식적 영역뿐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개인적 영역에서도 작동하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파워는 대인관계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힘이 불균형을 이룰 때 특히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 Weber(1946)는 파워란 자신의 의지대로 타인으로 하여금 그가 저항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고, Lewin(1941)도 파워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도까지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조혜자, 2002 재인용). 이후 French와 Raven(1959)도 사회적 힘과 권력은 가능한 영향력이라고 보았으며, Fiske(1993) 역시 파워란 타인에게 비대칭적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힘의 원천은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French와 Raven(1959)은 그 원천이 합법성이나, 보상, 강요, 매력, 전문적인 지식 등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강요적 파워는 개인이 하고자 원하는 행동을 막거나 하기를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한편 Johnson(1976)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유능함으로 구체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간접적인 파워, 무기력의 파워, 개인적인 파워도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파워는 여러 가지

원천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파워를 사용하고 추구할 수 있다. 현실에서 파워는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Raven(1993)에 의하면 사람들은 파워있는 대상에 대해 세 가지 유형의 반응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파워있는 사람을 향하거나(toward), 피하거나(away from), 대항하는(against) 방식이 포함된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나 능력에 근거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 파워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관계를 통해 파워를 추구하기도 하고 회피하면서 자기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 도구적 관계

Parsons와 Bales(1955)는 성별분업체계를 설명하는 한 축으로 도구적인 행동과 표현적인 행동을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는 동시에 구성된 간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과제완수를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할당하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도구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즉 도구적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고 과제 지향적이며 성취를 향한 행동이다. 따라서 도구적 행동에는 능동성, 객관성, 독립성, 공격성, 지배, 유능과 같은 특성들이 포함된다. 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대인적 욕구와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조정자, 활력자, 위로자의 역할을 표현하는 행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표현적 행동은 타인을 보살피고 배려하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행동을 포함한다. Parsons와 Bales는 남성들은 과제역할을 담당하면서 도구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사회 정서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표현적 행동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녀 역할 구분이 많이 완화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행동양식들은 남녀를 구분하는 독특한 특성으로 보기 보다는, 개인이 담당하는 역할과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개인적 취향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구적인 행동은 과제완수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연과 학연 등 인맥중심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적 연줄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김선업, 1992). 연줄이라는 말은 대인관계가 단순히 친밀한 관계나 연결이기보다는 효과적인 자원을 얻는데 필요한 배경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즉 연줄과 같이 인간관계를 자신의 성취수단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도구적 관계로, 한국의 상황에서는 관계적 자아의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관계적 자기 관련 측정 도구들

최근 국내외에서 관계적 자기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는 여러 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다.

개인이 특정 개인들과 맺는 관계에 기초한 관계적 자기는 개별적이고 독특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측정하고자 시도되었다. Rosenberg(1997), Ashmore(1997)등은 위계적 범주분석(HICLAS)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각 개인들이 표적인물에 대해 갖는 개별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알아보려 하였다. 이 측정법은 먼저 개인들이 자신의 독특한 특성들을 제시하면, 그

특성들을 컴퓨터에 모두 입력해 두었다가, 표적인물과 있을 때 자신이 특성들 중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인의 독특한 관계적 자기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측정과 분석이 쉽지 않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여, Suh(2002)와 Donahue 등(1993)은 관계특수적 자기를 측정하여 자기일관성을 알아보고 있다. 이들은 25개의 성격특성 형용사를 제시하고, 각 형용사가 의미있는 타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반응하게 하였다. 한 개인은 여러 명의 의미있는 타인들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고, 각 반응들의 유형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일관성을 보이는지의 지표가 되었다. 이 검사는 개인이 타인과 있을 때 얼마나 일관되는지와 관련된 자기 복잡성과 일관성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지만, 관계적 자기의 다중적인 내용특성을 밝혀내기는 어렵다.

한편 Aron(2002)은 관계가 자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는 친밀한 관계가 자기를 조형하고 재조형하여 자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적 자기는 자기와 타자가 겹치는 인지적 표상으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된 척도로는, Clark 등(1987)의 Communal Orientation Scale(COS)이 있다. COS는 친밀한 타인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타인의 욕구에 반응적인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4문항으로 구성된 단일 요인의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한 타인의 행복에 책임감을 느끼고, 친밀한 사람의 욕구에 반응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내적 일관성은 .78이었다. Berscheid 등(1989)은 Relationship Closeness Inventory(RCI)를 개발하였는데, RCI는 친밀한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 친밀한 사람과 함께 하는 상호작용의 다양성, 친밀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 결정, 활동, 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한다.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적 일관성은 .56-.90 수준이었다. Aron 등(1992)은 RCI가 사회문화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RCI에 대한 대안으로 Inclusion of Others in the Self scale(IOS)를 개발하였다. IOS는 대인간 상호연결감을 평가하는 그림 척도로, 원의 중첩정도를 7가지로 변화시킨 척도 상에서 자신과 관계대상이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지를 지적하게 하였다. 이 척도는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특수한 관계만을 다룰 뿐 관계적 자기의 다중적인 특성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Locke(2002)는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주도성(agency)차원과 친교(communion)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주도성 차원에는 지위, 권력, 지배가, 친교차원에는 친절, 온정, 사랑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는 CSIV(Circumplex Scales of Interpersonal Values)를 제작하여, 매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주도성과 친교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양화하고자 하였다. 이 검사는 6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도성 차원과 친교 차원을 변화시킨 8요인(A+, A+C-, C-, A-C, A-, A-C+, C+, A+C+)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A+는 주장과 관련되고, A-는 복종, C+는 친교, C-는 분리를 의미한다. 또한 이 검사는 특수한 의미있는 타자들과 함께 있는 관계맥락에서 주도성과 친교성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사용되어 왔다. 이 검사는 관계성을 두 직교적 차원에서 다루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관계적 자기는 이러한 두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시사되는 많은 연구들이

누적되고 있다.

위에서 본 검사들은 관계특수적 관계나 일반적인 관계적 자기를 다루기 때문에 각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대인관계 문제를 진단할 수는 있지만, 각 개인들의 관계적 자기의 공통적인 요인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Cross와 Madson(1997)은 ‘타인과 있을 때의 자기(self with other)’ 개념과 같은 관계특수적 관계적 자기에 동의하지만,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미 Singelis(1994)는 Markus와 Kitayama(1991)의 문화에 따른 자기해석양식의 차이에 기초하여, 자기해석 척도를 개발하였다(Self-Construal Scale; SCS). SCS는 타인과 구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독립적 자기해석 척도 12문항과 타인과의 관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척도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내적 일관성은 독립적 자기해석 척도가 .69,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척도가 .71이었다. 그러나 이 척도가 측정하는 상호의존적 자기는 집단적 자기만을 측정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Cross 등(2000)은 관계적인 유형의 사람들을 파악해내기 위해,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관계적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검사(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RISC)를 제작하였다. RISC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는가, 그러한 존재가 나를 정의함에 있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인가를 측정하고 있는 단일 요인의 총 11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RISC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자기개방성의 정도가 강하고, 친근한 관계에 몰입한다고 보았다. Cross 등(1997, 2002)은 남성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자기해석양식을 나타내고,

반면 여성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양식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동양 사회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기해석양식이 상호의존적인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독립적 자기해석양식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RISC를 적용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김지경과 김명소, 2003), 우리나라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점수에 있어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관계적 자기의 역기능적 측면과 관련된 측정 도구로는 Jack과 Jill(1992)이 개발한 The Silencing the Self Scale(STSS)가 있다. STSS는 자기 침묵적 인지 도식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7점 척도의 31문항의 자기 보고식 척도로,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적인 자기 지각(externalized self-perception)은 외적인 기준에 의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기 희생을 통한 돌봄(care as self-sacrifice)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보다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자기 침묵(silencing the self)은 자기 표현을 억제하고 관계의 갈등이나 손상을 회피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분열된 자기(divided self)는 내적인 분노나 적대성을 억누르고 여성적 역할에 순응하는 외적 자기를 드러내는 정도를 나타낸다. 또 다른 역기능적 측면을 다루는 검사로는 Spann과 Fisher(1990)의 공의존성 척도(Codependency Scale)를 들 수 있다. 이 검사는 상호의존 수준을 평가하는 16 문항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하위 요인으로는 자기 외면, 타인 돌봄에의 몰두, 관계 유지를 위한 감정 표현의 억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존재감 획득 등이 있다. 문항 예로는 “나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선시한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할

때 죄책감을 경험하곤 한다.” 등이 있다. Cowen(2000) 등의 연구에서의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79이었다.

반대로, 관계를 통해 얻는 긍정적 보상과 관련된 측정 도구로는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SB) 척도 중,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 요인이 있다. 이는 관계에서의 만족을 통해 얻는 행복감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이 많지 않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Ryff(1989)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83이었다.

관계적 자기는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기 일관성 역시 관계적 자기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연구들에서는(Donahue 등, 1993; Hstings 등, 2001)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예, 친근하다)에 대해 여러 상황에서의 그 특성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를 평정하게 하여 자기 일관성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자기일관성과 관련된 척도로 Sheldon 등(1997)이 개발한 진정성 척도(Authenticity Scale)가 있다. 이는 관계 내에서의 자기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 단일 요인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온전한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할 때 진실성을 느낀다고 가정하고, 관계 내에서 진실한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문항 예로는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내 방식대로 행동할 수 있다” 등이 있다. Sheldon 등(1997)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86이었다.

국외에서는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관계적 자기의 일부 요인들을 각기 측정해낼 수 있는 척도들이 비교적 여럿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 실시된 관계적 자기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김동직과 한성렬(1998)은 개별성과 관계성을 측정하는 36문항을 구성하여, 개별성에서 자기 주장성, 타인 의식, 독특성 추구, 관계성에서 관계 형성, 관계 유지, 타인 배려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는 Singles(1994)의 독립적 자기해석 척도,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척도와 유사한 구성 개념의 척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종구 등(2003)은 집단 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한국 여성의 자기 개념을 구성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물리적 자기, 개인(정신적) 자기, 관계적 자기, 집단적 자기가 한국 여성의 자기 개념을 구성하는 요인들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김지경과 김명소(2003)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관계적 자기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이 도구성과 표현성이며, 남성의 경우 도구성이 여성이 경우 표현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구성은 실리성, 독자성, 주도성, 유능성, 주체성과 같은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표현성을 공감성, 의존성, 배려, 수동성 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개발된 여러 척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관계적 자기의 경험적 측면과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루어진 관계적 자기의 개념이 모호하고, 상호 중첩되는 항목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서구의 정서가 반영된 문항 내용을 번안하여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문항들도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관계적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다소 제약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우리 문화를 잘 반영하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구조에 기

반을 둔 척도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I. 관계적 자기에 관한 예비 연구를 실시한다.

1. 관계적 자기의 구성 개념을 밝히기 위하여 관계적 자기 예비 문항을 개발한다.
2. 선정된 예비문항에 관한 내용 타당도 검증과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관계적 자기 최종 예비 척도를 선정한다.

II. 관계적 자기 척도를 개발한다.

1. 관계적 자기 최종 예비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통해 관계적 자기 척도의 요인과 문항을 확정한다.
2. 최종 선정된 관계적 자기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 타당도를 확인한다.
3.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계적-상호의존적 자기해석 검사, 부모 및 친밀한 사람에 대한 애착, 자존감 검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본다.

관계적 자기 척도를 개발하기 절차는 다음의 단계를 거쳤다.

1. 연구 I에서는 우선, 관계적 자기에 관한 문헌 연구와 관계적 자기 관련 척도 등의 고찰을 통해서 문항을 개발했다. 다음으로, 개발된 문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검증과 성인 남녀 332명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부적합한 문항을 제외한 후 척도의 차원과 예비 문항을 설정했다.
2. 연구 II에서는 연구 1에서 구성된 척도로 396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척도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문항 분석을 하여 최종적으로 관계적 자기 척도의 차원과 문항을 확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최종적인

관계적 자기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고 통계적 검증을 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관계적 자기 척도가 구성 타당도가 높은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끝으로, 다른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개발된 측정 도구의 기준 타당도 중 동시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를 검증하여 봄으로써 변별력을 살펴보았다.

## 연구 I. 예비 연구

### 예비 문항 개발

관계적 자기 척도 개발을 위하여, 관계적 자기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기존의 관계적 자기 관련 척도를 참고하여, 1차적으로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관계적 자기 척도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 참고한 주요 척도는, Locke(2000)의 Circumplex Scales of Interpersonal Values(CSIV), Clark 등(1987)의 Communal Orientation Scale, Berscheid 등(1989)의 Relationship Closeness Inventory(RCI), Singles(1994)와 Markus와 Kitayama(1991)의 독립적 자기해석양식 척도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척도 중 상호의존적 자기척도, Cross(2000)의 관계적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양식 척도(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RISC), Jack과 Jill (1992)의 The Silencing the Self Scale(STSS), Spann과 Fisher(1990)의 Codependency Scale, Sheldon 등(1997)의 Authenticity Scale, Ryff(1989)의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 등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로, 김지경(2003), 이종구 등(2003)이 개발한 관계적 자기 척도 및 관계적 자기개념 검사를 참고하였다.

기존의 척도에서 다루어진 관계적 자기의 여러 가지 개념과 이론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종합한 결과, 10개 요인에서 102개의 관계적 자기 예비 문항이 구성되었다. 1차적으로 구성된 10개 요인 102개의 문항에 대해서 심리학 전공 박사 5인이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각 문항들이 본 연구에서 기술한 관계적 자기의 정의 및 구성 개념을 얼마나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평정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0개 영역은 관계 의존, 타인의식, 공감-배려, 관계에서의 감정 경험, 관계 무능감, 거짓자기, 도구적 관계, 주도성, 파워, 수동성이다. 각 항목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6)의 6점 척도 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점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 예비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 연구 대상

관계적 자기 척도의 예비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성인 남녀 341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응답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듣고

표 1. 연구 대상의 구성

	남자	여자	계
20대	62	85	147
30대	47	51	98
40대	23	31	54
50대 이후	19	14	33
계	151	181	332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했으며, 설문에 응한 대가로 대학생에게는 오천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성인에게는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였다. 결측치가 너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2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의 연령별, 성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분석 방법

SAS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 결과

예비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요인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단일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communality)의 초기값은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관계제곱치)로 지정하였다. 축소상관행렬의 단일주축분해 결과 산출된 고유치 및 누적분산 비율, scree plot, 이론에 근거한 해석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의 수는 7 개였다.

관계적 자기 예비 척도의 요인을 검토한 결과, 주도성과 수동성이 한 요인으로 묶였다. 이는 문항 제작 및 토론 과정에서 수동성과 주도성이 동일한 차원을 상반되게 묻는 개념일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어, 이후 분석에서는 주도성과 수동성 요인의 문항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파워와 도구적 관계 역시, 파워 있는 타인과 친밀해짐으로써 관계를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음이 논의된 바 있어, 파워 문항과 도구성 문항을 함께 묶

어 분석하였다. 한편 거짓 자기 요인은 관계 의존 요인과 타인 의식 요인으로 문항들이 나뉘어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자기는 중요한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위하여 타인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상대에 따라 자신을 의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과도한 관계 의존으로 인해 자신을 배제한 채 타인에게만 몰두하고 상대를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제하는 것 과도 관련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의식 정도가 높아,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제시하는 방식이 상대에 따라 달라질 때 거짓 자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자기, 관계 의존, 타인 의식의 관련 가능성은 이미 문항 제작 및 문항 검토 과정에서 논의된 바 있고, 경험적 분석 결과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어, 최종적으로 거짓 자기 요인을 관계 의존 요인 및 타인 의식 요인과 관련지었다.

요인 수를 7개로 결정한 다음, 7개 요인들의 요인간 상관을 살펴 본 결과 요인간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초요인 구조의 회전 방법을 사각회전(oblique)으로 선택하였다. 이 때 Harris-Kaiser의 사각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HKP(Harris-Kaiser 계수)를 0.3으로 적용하여 최종 요인 구조가 간명하고,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하기에도 용이하게 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여러 요인에 동시에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13문항, 최종 요인 구조에서 측정하고자 했던 요인과는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는 6문항, 요인 부하량이 .3 이하인 11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요인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7개 요인이 보다 안정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요인간 신뢰도 계수도 적합하게 나와

7요인 72문항을 최종적인 예비 척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부록1>에 관계적 자기 예비 척도가 제시되었다. 요인별 문항 수를 살펴보면, 관계 의존이 9문항, 타인 의식하기가 15문항, 공감-배려가 7문항, 관계에서의 지지 받기가 9문항, 관계 무능감이 9문항, 도구성이 9문항, 주도성이 14문항이다. 각 요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Cronbach  $\alpha$ )는 관계 의존이 .69, 타인 의식하기가 .73, 공감-배려가 .70, 관계에서의 지지 받기가 .71, 관계 무능감이 .70, 도구성이 .71, 주도성이 .74이었다.

## 연구 II. 관계적 자기 척도 개발

### 관계적 자기 최종 예비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 연구 대상

예비 척도 개발 단계에서 제작된 관계적 자기 척도를 서울 및 수도권의 성인 남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듣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했으며, 신뢰로운 반응을 얻기 위하여 설문에 응답한 대가로 대학생에

표 2. 연구 대상의 구성

	남자	여자	계
20대	86	95	181
30대	49	51	100
40대	31	33	64
50대 이후	21	30	51
계	187	209	396



게는 오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성인에게는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였다. 결과치가 너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96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의 연령별, 성별 분포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분석 방법

예비 척도 72 문항에 대해서 관계적 자기 척도의 구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SAS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후, 문항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문항을 선별하였다. 기술통계치 분석과 신뢰도 산출은 SPSS 12.0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다.

#### 결과

##### 문항 분석

관계적 자기 예비 척도의 구인을 검토하기 위해 앞서,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분석에 적용된 기준은 전체 문항의 상호 상관, 각 문항의 평균, 표준 편차, 범주별 반응 빈도와 하위 요인 문항들의 문항-총점간 상관이었다. 전체 문항의 상호 상관이 .8 이상인 문항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시켰고, 평균이 너무 높거나 낮은 문항들은 반응이 너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편포되어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항이라는 판단 하에 제거하였다. 또한, 표준 편차가 너무 작은 문항들도 반응이 다양하지 않아 개인차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제거하였다. 문항별 빈도 분석에서 무응답이 응답자의 25%이상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문항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31문항이 제거되었고, 7요인 41개의 예비 문항이 선정되었다.

##### 탐색적 요인 분석

성인 남녀 396명(남자 187명, 여자 209명)을 대상으로 7개 요인 41개 문항으로 구성된 관계적 자기 척도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관계적 자기 척도의 구성 요인은 다음과 같다. 1요인은 ‘지지 받기’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관계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경험 및 정서적 지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6개 문항으로 묶였다. 2요인은 관계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성과 관련된 것으로, ‘주도성’이라고 명명하였고, 5문항으로 묶였다. 3요인은 관계 및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의존’이라 명명하였고, 4문항으로 묶였다. 4요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조화 및 배려를 중요시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공감-배려’라고 명명하였고, 4개 문항으로 묶였다. 5요인은 관계를 통해 실제적인 도움과 이득, 파워를 얻으려는 경향성을 반영하여 ‘도구성’이라고 명명하였고, 8문항으로 묶였다. 6요인은 관계에서의 무능감 및 관계 회피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계 회피’라고 명명하였고, 6문항으로 묶였다. 마지막으로 7요인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상대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이거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을 반영하는 8문항으로 묶였고 이를 ‘타인 의식’으로 명명하였다. 7요인 41문항에 대한 구조 계수 행렬이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최종 선정된 관계적 자기 척도의 문항

요인	문항번호	문항 내용
지지 받기	35	나는 친밀한 관계에서 위로를 받는다.
	2	나는 친밀한 관계에서 힘을 얻는다.
	22	나는 친밀한 관계에서 지지를 받는다.
	10	타인과의 관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29)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다.
	(14)	나는 주변사람들이 매우 정겹게 느껴진다.
주도성	34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킬지라도 나는 항상 내 주장을 명확하게 말한다.
	16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해치더라도 내 입장을 밝힌다.
	41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다. (-)
	3	나는 의견이 나뉠 때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21	나는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좋은 관계유지를 위해 내 생각을 감춘다. (-)
관계 의존	7	나는 상대방을 즐겁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느낀다.
	25	가까운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17	나는 다른 사람에 맞추어 나를 변화시킨다.
	39	나는 가까운 사람이 나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공감- 배려	1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편이다.
	19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 주려고 애쓴다.
	31	나는 친한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11	나는 타인의 입장에 쉽게 공감한다.
도구성	40	나는 유능하거나 파워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33	유능하거나 파워 있는 사람과 있을 때 나는 힘이 난다.
	15	나는 파워 있는 사람과 친한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다.
	37	나는 실질적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28	나는 내 경력과 장래에 도움이 될 폭넓은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4)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는 내가 관계 맺을 때 중요한 기준이다.
	(8)	곤경에 빠졌을 때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보다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낫다.
(25)	소수의 사람을 깊이 사귀기보다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 낫다.	
관계 회피	20	나는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편이다.
	30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13	나는 타인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다.
	5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
	(36)	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9)	나는 주변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잘 맺는 편이다.(-)
타인 의식	23	나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 질 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27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쓴다.
	38	나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쓴다.
	32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편이다.
	18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원한다.
	(12)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어리석게 보일까봐 조심한다.
	(6)	나는 사람들의 좋은 평가나 칭찬에 약하다.
	(26)	나는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다.

(-)는 41개의 예비 문항 중, 최종 분석에서 제외된 문항들임.

표 4. 관계적 자기 척도 문항별 기술 통계치 및 내적 일관성

하위 척도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간 상관	내적 일관성
지지받기	35	4.49	.89	.66	.77
	2	4.08	.90	.63	
	22	4.50	.89	.58	
	10	4.44	.90	.48	
주도성	34	3.29	1.04	.66	.79
	16	3.31	1.01	.59	
	41	3.58	.98	.61	
	3	3.39	1.04	.53	
	21	3.43	.97	.48	
관계의존	7	3.33	1.07	.60	.78
	24	3.81	.98	.63	
	17	3.45	.96	.56	
	39	3.86	1.91	.55	
공감-배려	1	4.41	.98	.57	.77
	19	4.49	.96	.61	
	11	4.31	.95	.56	
	31	4.49	1.03	.57	
도구적 관계	40	3.70	1.18	.75	.83
	33	3.40	1.15	.66	
	15	3.49	1.19	.67	
	37	3.48	1.18	.50	
	28	3.95	1.19	.57	
관계 회피	30	2.78	1.15	.76	.86
	20	2.57	1.11	.74	
	13	2.95	1.15	.69	
	5	3.03	1.26	.65	
타인 의식	23	4.13	1.11	.77	.86
	27	4.11	1.12	.71	
	38	3.15	1.59	.69	
	32	3.70	1.09	.61	
	18	4.50	.98	.60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7요인 41문항을 선정하였으나, 요인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정된 41문항에 대해 다시 문항을 검토하였다. 문항 선별 기준은 전문가들의 내용 타당도 검증, 문항의 이해도와 난이도에 대한 분석, 요인별 신뢰도(Cronbach' α)와 문항-총점간(item-total) 상관계수, 요인 분석 결과에 근거한 요인 부하량, 요인별 문항 수 등이었다. 문항 분석 결과, 10개 문항이 제거되고 최종적으로 31문항이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31문항에 대해 요인수를 7로 설정하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적 자기 척도의 최종 척도의 구조계수 행렬이 <부록 3>에, 문항 내용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기술 통계치 및 타당도, 신뢰도 검증**

최종적으로 선정된 31문항에 대해 기술통계치를 검증했다. 관계적 자기 척도의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 α 및 기술 통계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 α는 지지받기는 .770, 주도성 .794, 관계 의존 .781, 공감-배려 .775, 도구성 .831, 관계 회피 .863, 타인 의식 .860으로 모두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문항-하위 요인 총점 간 상관도 대부분의 문항에서 .5 이상을 보여 각 하위 요인을 측정하기에 양호한 문항으로 판단되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

**연구 대상**

표 5. 연구 대상의 구성

	남자	여자	계
20대	105	128	233
30대	77	98	175
40대	52	73	125
50대 이후	66	61	127
계	289	360	649

확인적 요인 분석은 서울 및 수도권의 성인 남녀 7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연구 목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응답에 대한 보수를 제공하였다.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49명(남자 289명, 여자 360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0대는 대상자 대부분이 대학생이었으며, 30대 이후는 일반 성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은 중산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연령별, 성별 분포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방법**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 다집단 분석, 잠재 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확인적 요인 분석**

관계적 자기 척도의 이론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7요인 모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은 7요인 간의 상관을

가정한 모형으로 설정하였고, 경쟁 모형은 고차 잠재 요인을 가정한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한국인의 관계적 자기를 구성하는 개념들이 서로 어느 정도의 상관은 있을 수 있으나, 한두 가지의 단일 요인이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고, 위계적으로 범주화 될 수도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경쟁 모형으로 고차 잠재 요인을 가정한 이론적 근거는 자기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전반적인 자기 개념이 위계적으로 범주화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Fiske와 Taylor, 1991), 또한 관계적 자기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은 관계적 자기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 관계성에서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독립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Singles, 1994), 도구성과 표현성(Parsons와 Bales, 1955), 주도성과 수동성(Bakan, 1966), 관계 중시와 개인 중시, 관계에 대한 접근과 회피(Frank와 Brandstatter, 2002; Sakellaropoulou와 Baldwin, 2006) 등의 상호 대비되는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계적 자기에 대한 김지경(2003)의 연구에서는 이 요인으로 나누고, 도구성에는 실리성, 유능성, 독립성이, 표현성에는 공감, 의존성, 배려가 하위 요인으로 포함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지 받기’와 ‘공감-배려’에 대한 고차 잠재 요인으로 ‘관계 중시’ 요인을, ‘주도성’과 ‘도구적 관계’에 대한 고차 잠재 요인으로 ‘개인 중시’을, ‘관계 회피’, ‘관계 의존’, ‘타인 의식’에 대한 고차 잠

재 요인으로 ‘부정적 관계’를 가정하여, 7요인을 위계적으로 범주화하였다. 관계적 자기 척도의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과 자료가 부합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는데,  $\chi^2$  검증의 경우,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홍세희, 2007).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TLI와 RMSEA를 고려하였다(홍세희, 2000). 일반적으로 TLI는 .90 이상인 경우 좋은 적합도로, RMSEA는 .06 이하일 경우 상당히 좋은 적합도로, .08 이하일 경우 괜찮은 적합도로 판정된다(Hong et al, 2003). 본 연구 모형인 7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6에 제시된 바대로 TLI가 .900, RMSEA가 .051로 모두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다. 경쟁 모형인 고차 잠재 요인을 가정한 모형도 적합도 지수가 TLI .894, RMSEA .054으로, 비교적 양호한 값을 나타내어 대체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관계적 자기가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적 입장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 기초해 볼 때, 7요인 모형이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에 좀 더 적합하고, 적합도 지수 면에서도 고차 모형에 비해 7요인 모형이 지수가 다소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7요인 모형을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관계적 자기 척도의 확인된 경로 모형

표 6. 관계적 자기 척도의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자유도	p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연구 모형(7요인 모형)	1100.8	413	.000	.923	.900	.051(.047-.054)
경쟁 모형(고차 요인 모형)	1220.8	424	.000	.911	.894	.054(.050-.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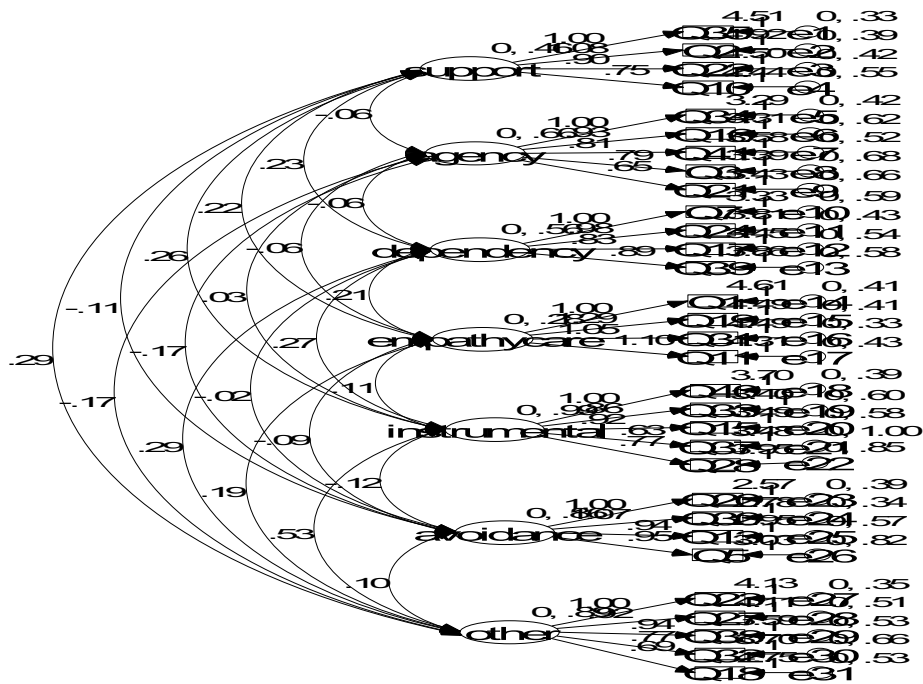


그림 1. 관계적 자기 척도의 확인된 경로 모형

\*측정 변인의 표준화 계수는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다집단 동등성 검증

관계적 자기의 성차에 대한 연구들은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관계성에 성차가 있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고, Cross 등(1997)도 남성은 독립적 자기 해석이 우세하지만 여성은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도록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자기해석을 우세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김지경 등(2003)은 남성은 도구성이나 주도성이 높은 반면 여성은 공감이나 의존성이 높으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없음을 보여준 바 있다. 선행 연구들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관계적 자기 척도가 남녀에게 있어서 동일한 요인 구조를 갖는지 검증하고, 잠재 요인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집단간 요인 구조가 같은지 검증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척도 동일성, 오차 분산 동일성 등을 검증한다(홍세희, 2007). 형태 동일성은 기본적인 모델 구조가 집단 간에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기저 모형은 측정하려는 모수에 대하여 집단 간 동일성을 가하지 않은 모형으로, 집단에 따라 다른 모수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모형과 비교할 때 기준이 된다

(Hong et al, 2003). 형태 동일성이 확보되면, 측정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 측정 동일성 검증은 모형의 요인들이 집단 간에 같은 의미를 지니는지, 요인 계수가 집단 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요인 계수가 집단 간에 같다는 것은 측정 변인들이 같은 잠재 요인을 측정함을 나타낸다.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면, 집단 간에 측정 절편이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척도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Hong et al, 2003). 형태, 측정, 척도 동일성이 확보되면 잠재 평균 비교가 가능하다.

우선, 남녀 집단에서 7요인 모형의 요인 구조가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남녀 집단 각각에 대해 고차 모형과 7요인 모형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7요인 모형과 고차 모형의 적합도 지수 산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산출된 CFI, TLI, RMSEA 값에 따르면, 고차 잠재 요인 모형에 비해 남녀 집단 모두

에 대해 7요인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모두에게 7요인 모형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음,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남녀 간의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척도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7요인 모형으로 남녀를 대상으로 어떠한 동일화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 분석을 통해 형태 동일성 검증을 하였다. 표 8에 제시한 결과와 같이 TLI가 .902로, RMSEA 값은 .037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RMSEA의 추정값의 90% 신뢰 구간이 좁게 나오므로써, RMSEA 값이 안정되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태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형태 동일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측정 동일성 검증을 위해 남녀의 요인계수가 같다고 가정한 2모형과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1모형과의  $\chi^2$  차이

표 7. 관계적 자기 척도의 남녀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자유도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남자	7요인	755.9	413	.900	.91	.054(.048-.060)
	고차 요인 모형	809.2	424	.897	.90	.056(.050-.062)
여자	7요인	778.8	413	.901	.92	.050(.044-.055)
	고차 요인 모형	868.5	424	.886	.90	.054(.049-.059)

표 8. 관계적 자기 척도의 남녀 집단의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자유도	TLI	RMSEA(90% 신뢰 구간)
1모형 :	형태 동일성	1540.2	826	.901	.037(.034-.039)
2모형 :	측정 동일성	1589.9	850	.902	.037(.034-.039)
3모형 :	측정 및 척도 동일성	1706.4	881	.897	.038(.035-.041)
4모형 :	측정 및 부분 척도 동일성	1625.8	873	.902	.037(.034-.039)
5모형 :	측정, 부분 척도, 요인 분산 동일성	1678.9	882	.902	.037(.034-.039)

검증을 하였다. 두 모형 간  $\chi^2$  차이값은 49.5, 자유도의 차이는 24로  $\alpha=.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chi^2$  값은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고(Hong 등, 2003), 측정 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 많은 동일화 제약을 가하게 되면 자유도가 늘어나고 이때는  $\chi^2$  차이 검증 역시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적합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홍세희, 2007). 따라서 TLI와 RMSEA를 고려하였으며, 표 8에 제시된 대로 TLI와 RMSEA가 1모형과 2모형에서 거의 동일한 값을 보여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요인 계수가 같다고 제약을 가한 2모형과 각 지표 변수의 절편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한 3모형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 간의  $\chi^2$  차이값은 116.5, 자유도의 차이는 31로  $\alpha=.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LI와 RMSEA도 근소하지만 2모형에 비해 3모형에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완전 척도 동일성을 기각하였다. Bryne 등(1989)과 Steenkamp 등(1998)은 완전 측정 동일성이나 완전 척도 동일성이 모형 간의 동일성 검증이나 잠재 요인 평균의 비교와 같은 분석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Hong et al, 2003). 이에 부분 척도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측정변수의 절편이 다른지를 확인하고, 측정 변수의 동일화 제약을 풀어주었다. 측정 변수의 동일화 제약을 일부 풀어준 4모형과 2모형 간의  $\chi^2$  차이 값은 35.9, 자유도의 차이는 23으로  $\alpha=.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TLI와 RMSEA는 2모형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여 부분 척도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부분 척도 동일성이 확

표 9. 관계적 자기 척도의 남녀간 잠재평균 분석

요인	남자	여자
주도성	0	-.056
관계 의존	0	-.110
공감-배려	0	.045
지지받기	0	.150
도구적 관계	0	-.100
관계회피	0	.031
타인 의식	0	-.057

보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잠재 요인 평균에서의 남녀 차이를 비교하였다.

#### 남녀간 잠재 평균 분석

척도 동일성까지 확보되면 척도의 잠재 평균이 남녀에 따라 다른지에 대한 잠재평균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데, 잠재 요인의 평균은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남자를 참조집단으로 하여 각 잠재변수의 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남녀의 잠재 평균을 비교하였다. 산출된 잠재 평균의 차이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도성, 관계의존, 도구적 관계, 타인 의식 요인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왔고, 공감-배려, 지지받기, 관계 회피 요인에서도 남자에 비해 여자가 잠재 평균이 높기는 하지만,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변인과의 상관 관계

끝으로, 관계적 자기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관계적 자기의 구성 요인들과 관련된 변인들인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양식(Cross, 2000), 자존감, 애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양식은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정의하는 것으로, 자신을 친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인식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관계에서의 조화를 중시하는 자기해석양식이다. Cross 등 (2000)은 집단주의가 중시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우세할 것이라고 보았으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양식 관련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다. 다면적인 관계적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양식은 관계적 자기를 구성하는 한 요인일 수 있지만, 관계적 자기의 다양한 측면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관계적 자기 요인들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양식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개인의 관계적 특성은 자기 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역으로 자기존중감 역시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Leary(1995)는 자기존중감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적인 척도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이 의미있는 타인들에게 수용되고 사랑 받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타인으로부터 거부되고 관계로부터 소외될 때 자존감이 저하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자기의 요인들이 자기존중감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애착(attachment)이란 삶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느끼는 강력한 정서적 결속으로,

Bowlby(1980, 1982)에 따르면, 생의 초기에 영아는 양육자와의 반복되는 관계 경험을 통해 중요한 타인, 중요한 타인과 자기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에 대한 내적 표상을 만들어나간다. 이렇게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면서 정서나 대인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는 반면 애착이 안정적이지 않은 개인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지각하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내적 작동 모델은 생의 초기에는 비교적 유동적으로 작동하지만, 애착 대상과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되면서 점차 변화에 저항하게 된다(Egeland & Farber, 1984). 개인의 애착 특성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대인 관계 맥락에서 기능하는 개인의 관계적 자기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비록 개인의 애착 특성이 비교적 상황적 여건과 무관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애착 특성이 표현되는 방식은 개인이 성숙함에 따라 그리고 애착 관계가 활성화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Bretherton, 1992) 점에서, 애착 특성과 성인의 관계적 자기의 특성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자기의 요인들이 애착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 연구 대상

관계적 자기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한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의 성인 남녀 3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표 10. 연구 대상의 구성

	남자	여자	계
20대	56	101	157
30대	32	42	74
40대	20	22	42
50대 이후	11	13	24
계	119	178	297

적으로 297명(남자 119명, 여자 178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0대 대상자는 대부분 대학생이었으며, 30대 이후는 일반 성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연구 대상의 연령별, 성별 분포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도구

**관계적 자기 척도(Relational Self Scale; RSS)**

연구 1에서 개발한 7개 요인 31문항을 사용하였다.

**관계적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척도(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cale)**

Cross 등(2000)이 개발한 관계적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척도는 친밀한 관계성 측면에서의 자기해석양식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는가, 나를 정의함에 있어 친밀한 존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를 6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상호의존적 자기해석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  $\alpha$ )은 .83이었다.

**자기존중감 척도**

Rosenberg의 자기 존중감 척도는 자기존중감을 단일 차원으로 개념화하여 포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측정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송지원(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 존중의 정도와 자기 승인 양상을 측정하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80이었다.

**애착 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국내에서 옥 정(1997)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 부모 애착에 대한 문항 기술 방식이 원 척도에서는 '현재' 부모와의 관계를 묻도록 되어 있어 나이든 성인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형으로 재진술하여 제시하였다(예,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애착 측정을 혈연 관계(부모, 형제, 자녀)를 제외한 가장 친밀한 사람을 떠올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평정하게 함으로써, 일반화된 대인 관계에서의 애착이 아닌 보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애착을 평가하게 하였다. 이 척도는 부에 대해 25문항, 모에 대해 25문항, 친밀한 관계에 대해 25문항으로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의 IPPA-R은 세 개의 하위 요인(신뢰, 의사소통, 소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들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으므로(장휘숙 등, 2002), 전체 점수를 사용하여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부 애착 .89, 모 애착 .87, 친밀한 관계 .90 로 나타났다.

결과

**관계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관계적 자기 7요인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간의 상관 관계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양식은 관계 회피와는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 의존, 공감-배려, 지지받기, 도구적 관계, 타인 의식 등의 하위 요인과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자기와 자존감**

관계적 자기 7요인과 자존감 간의 상관 관계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자존감은 관

계 의존, 공감-배려, 지지 받기, 타인 의식과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회피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관계적 자기와 애착**

관계적 자기 척도의 7요인과 부, 모, 친밀한 관계에서 애착 안정성 간의 상관 관계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애착 안정성은 공감-배려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 회피 요인과는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적 자기 척도의 7요인과 애착 안정성 간의 상관은 애착 대상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주도성 요

표 11. 관계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간의 상관 관계

	주도성	관계 의존	공감-배려	지지받기	도구적 관계	관계회피	타인 의식
RISC	.03	.29**	.26**	.39**	.30**	-.22**	.25**

\*\* $p < .01$

표 12. 관계적 자기와 자존감간의 상관관계

	주도성	관계 의존	공감-배려	지지받기	도구적 관계	관계회피	타인 의식
자존감	.01	.20*	.17*	.20*	.06	-.33**	.18*

\* $p < .05$ , \*\* $p < .01$

표 13. 관계적 자기와 부, 모, 친밀한 관계에서의 애착 간의 상관관계

	주도성	관계 의존	공감-배려	지지 받기	도구적 관계	관계회피	타인 의식
부애착	.005	.04	.12*	.08	.04	-.14**	.03
모애착	.05	.07	.16**	.13*	.07	-.19**	.05
친밀한 관계에서의 애착	.11*	.008	.25**	.22*	-.01	-.20**	.05

\* $p < .05$ , \*\* $p < .01$

인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애착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 애착 안정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관계에서 지지를 받는 정도는 모 애착, 친밀한 관계에서의 애착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가지나, 부 애착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우리 문화를 잘 반영하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구조에 기반한 관계적 자기 척도(Relational Self Scale: RSS)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과 예비 연구를 통해, 공감-배려, 관계에서의 경험: 긍정경험/관계회피, 타인의식과 자기제시, 주도성/수동성, 관계의존과 공의존성, 자기조절과 거짓자기, 파워, 도구적 관계 등을 관계적 자기의 잠재적 구성 요인으로 결정하고, 관계적 자기와 관련된 국내외 척도들을 참고로 하여 잠재적 구성 요인들을 측정하는 예비 문항들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관계적 자기 예비 척도 문항들에 대한 일련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최종 문항들을 선정했으며, 관계적 자기 최종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분석 절차를 거쳤다.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alpha$ 를 고려하였고, 타당도 검증은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 등을 검증하였다. 또한 남녀에 따라 관계적 자기 척도의 하위 요인별로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자기와 개념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양식과 애착,

자존감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총 102문항으로 구성된 관계적 자기 예비 척도를 제작하여 이 문항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문항을 선별하였다. 전체 변인의 상호 상관을 산출하여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여 72문항을 선별하였다. 이 72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 분석을 실시하여 7요인 41문항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관계적 자기 척도 각 하위 요인은 ‘지지 받기’, ‘주도성’, ‘관계 의존’, ‘공감-배려’, ‘도구적 관계’, ‘관계 회피’, ‘타인의식’이었으며 모두 적합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7요인 41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문항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7요인 31문항이 선정되었다.

31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는 관련 전문가 그룹의 문항 검토와 문항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관계적 자기 척도의 이론적 구조를 확인하는 구인 타당도 검증은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관계적 자기의 다면성 개념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 결과 도출된 7개의 요인을 관계적 자기의 구성 요인으로 가정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은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한 7요인 모형으로 설정하였고, 경쟁 모형은 고차 잠재 요인을 가정한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7요인 모형과 경쟁 모형 모두 적합도 지수에서 양호한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자기가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적 입장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 기초해 볼 때, 7요인 모형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좀 더 적합하고, 또한 적합도와 간명성을 모두 고려한

적합도 지수에서도 고차 요인 모형에 비해 7 요인 모형이 더 낫다는 점을 등을 종합하여, 7 요인 모형을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관계적 자기 척도가 남녀에게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형태동일성 검증을 통하여 성별에 따른 관계적 자기 척도의 7요인에 대한 구인 동등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각 문항의 성별 요인 계수가 동일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과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초 모형과의 비교 결과 측정 동일성을 확보하였다. 나아가 부분 척도 동일성도 확보되었다. 관계적 자기 척도의 구인 동등성이 확보됨으로서, 성별에 관계없이 관계적 자기 척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다음으로 관계적 자기의 7요인의 잠재평균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집단을 참조 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남녀 간에 유의미한 잠재 평균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문화적인 압력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자기 양식이 다를 것이라는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결과이며, 남성과 여성과 마찬가지로 관계를 지향하고(Baumeister와 Sommer, 1997), 관계적이며, 집합적 자존감을 갖는다는 관점(Foels과 Tomcho, 2005)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관계를 중시하고, 관계 내의 역할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관계적 자기 척도의 타당성은 관계적 자기와 개념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양식과 애착, 자존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서 검증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관계

적 자기 척도는 기존의 관계와 관련된 측정 도구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임으로서 관계적 자기 척도가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측면을 적절하고 포함하고 있으며 현실적 활용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RISC로 측정된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은 주도성을 제외한 6개의 구성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상대로 관계 회피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ISC 측정 결과,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이 높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정도 및 자신을 정의하는데 친밀한 사람을 반영시키는 정도가 높으며, 친근한 관계에 많이 몰입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관계적 자기 척도의 공감-배려, 지지 받기, 타인 의식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관계적 자기 척도의 관계 회피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이 타당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관계적 자기 척도의 상호의존성과 도구성 요인과 RICS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은 도구성은 목표, 성취, 과제 지향성과 관련되므로, 상호의존성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온 기존의 연구들과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는 관계에서의 상호의존성이 단순히 친교나 정서적 욕구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는데 있어서도 관계가 중요한 도구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관계적 자기 척도가 RISC와 구별되는 측면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관계적 자기의 구성 요인과 자존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자존감은 관계 회피와는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지지 받기, 공감-배려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존중감

은 유의미한 타인들로부터의 지지와 수용과 관련되고, 관계에서의 소외는 자존감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관계에서의 유능감이 자기존중감의 중요한 구성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관계적 자기의 구성 요인과 부, 모, 친밀한 사람과의 애착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주도성은 부모 애착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친밀한 관계의 사람과의 애착 안정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로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목했고, 다소 수직적인 부모와의 관계와는 달리, 수평적인 부부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는 주도성이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부, 모, 친밀한 관계에서의 애착 안정성은 관계 의존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관계 의존이 관계에서의 다소 역기능적 측면을 보여주는 구성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성인에게는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과 때로는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관계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요구하며 이것을 건강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는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나 친밀한 관계의 사람과의 애착 관계가 공고한 것이 반드시 관계 의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관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모 애착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나, 부 애착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아버지와 온정적으로 자녀를 보살피고

감싸주는 어머니로서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방희정, 2000).

##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관계적 자기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기존의 관계적 자기를 다루는 검사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관계적 자기를 측정해 왔다. 그중 하나는 관계특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검사들로서, 위계적 범주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각 개인들이 표적 인물에 대해 갖는 개별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알아 보거나(Rosenberg, 1997; Ashmore, 1997) 의미있는 타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관계특수적 자기를 측정하거나(Suh, 2002; Donahue 등, 1993), 또는 CSIV(Circumplex Scales of Interpersonal Values)처럼 매우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관계적 특성을 재었다(Locke, 2002). 이 검사들은 관계를 매우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인물에 대한 반응을 재고 있다. 다른 하나는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는 관계특수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보다 일반적인 관계의 측면을 다루는 검사들로서, Clark 등(1987)의 Communal Orientation Scale(COS), Aron 등(1992)의 Inclusion of Others in the Self scale(IOS) 및 Berscheid 등(1989)의 Relationship Closeness Inventory(RCI)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계와 관련된 자기를 다루기는 하지만, 친밀성과 같은 한 요인만을 다룰 뿐,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함께 다루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의 검사로는 특정인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문

제를 진단하거나, 관계적 자기의 단일 요인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각 개인들의 관계적 자기의 공통적인 요인들을 서로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관계적 자기 척도는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다루므로, 일반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관계적 자기 척도는 다양한 쓰임새로 그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관계적 자기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이를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관계에 따라 자기가 어떻게 다르게 기능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 확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즉 각 문항의 ‘타인의’, ‘사람들과’라는 단어를 의미 있는 특징인으로 바꿔 넣음으로써 ‘타인과 있을 때의 자기(self with other)’ 검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관계 특수적인(relation-specific) 관계적 자기를 측정한다면, 맥락과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자기의 내용을 프로파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관계별로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적 자기 비교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관계적 자기 척도 개발은, 이를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특수 검사개발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우선, 부부관계 검사, 부모-자녀 검사, 우정 및 애정 관계와 같이 다양한 관계 유형에 따르는 검사를 제작하는데 그 바탕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관계에서의 자기를 확인하는 기능 뿐 아니라 임상적 척도로 확대하여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관계적 자기 척도와 정신건강 관련 임상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서 검사의 타당성을 임상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정상인과 부적응인의 관계진단 검사로 관계적 자기 검사

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계적 자기 척도는 연령별 검사로 개발되어 발달에 따른 관계적 자기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의의도 지닌다.

본 연구는 관계적 자기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다수 남녀 대학생 및 성인 연구 대상자를 표집하여 척도화 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지역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유층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관계적 자기 척도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반검사로서 그 활용도가 크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주제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동일한 개인이 연령에 따른 역할변화와 함께 다양한 관계적 자기의 경험이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종단연구를 실시해 볼 수 있다. 이런 종단연구는 관계적 자기가 시대적, 상황적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기능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는 연령별 관계적 자기발달검사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동직, 한성열 (1998).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71-93.
- 김선업 (1992). 한국사회 연출망의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학*, 26집, 1-33.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4), 1-36.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

- 을 구성하는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문제. 12(5), 1-28.
- 김지경, 김명소 (2003). 한국 남녀의 관계적 자기의 특성: 다원적 구성요인 탐색 및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41-59.
- 김지영, 최상진, 김기범 (2001). 심리적 구성체로서의 한국 아줌마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327-347.
- 방희정, 조혜자 (2004). 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남녀의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83-106.
- 방희정 (2000). 한국 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41-65.
- 송지원 (1999).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옥정 (1997).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종구, 이해경, 김명소 (2003). 한국여성의 자기개념의 요인구조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2), 1-19.
- 장휘숙, 한건환, 전우정 (2002).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3), 93-108.
- 최상진 (2000).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ndersen, S. M. & Chen, S. (2002). The relational self: An interpersonal social-cognitive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09, 619-64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Aron, A., Aron, E., & Smollan, D. (1992). 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 and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clos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92-612.
- Aron, A. (2002). Self and close relationships. In M. Leary & J. Tangney(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442-461), NY: Guilford Press.
- Ashmore, R. & Jussim, L.(Eds.) (1997). *Self and identity*. NY: Oxford.
- Ashmore, R. & Jussim, L. (1997). Introduction: Toward a second century of the scientific analysis of self and identity.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Fundamental issues*. (pp.3-21),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Isolation and Communion in Western Man*. Beacon Press.
- Bandura, A. (1999). Social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In L. A. Pervin & O. P. John(Eds.), *Handbook of personality*(2nd ed., pp. 154-196). NY: Guilford Press.
- Batson, C. D. (1998). Altruism and prosocial behavior.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82-316.
- Batson, C. D., & Oleson, K. C. (1991). Current



- status of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In M. 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pp. 62-85), Newbury Park, CA: Sage.
- Baumeister, R. F. (1998). The Self.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Baumeister, R. F. (1997). Identity, self-concept, and self-esteem: The self lost and found.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Academic Press
- Baumeister, R. F. & Sommer, K. L. (1997). What do men want? Gender differences and two spheres of belongingness: Comment on Cross & Madson (1997). *Psychological Bulletin*, 122, 38-44.
- Berscheid, E., Snyder, M., Omoto, A. M. (1989) The relationship closeness inventory: assessing the closenes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 792-807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sadness and depression* (Vol. 3) NY: Basic.
- Bowlby, J. & McSH,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 664-678
- Bretherton, I.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59-775.
- Brewer, W. & Gardner, W. (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3-93.
- Byrne, B. M. (1989). *A primer of LISREL: Basic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models*. New York: Springer-Verlag.
- Bukarko, D., & Daehler, M. W. (2001). Self and value. In *Child development: A thematic approach* (4th ed.), pp. 405-447, Boston: Houghton Mifflin Co.
- Chen, S., & Boucher, H. C., Tapias, M. P. (2006) The relational self revealed: Integrative conceptualization and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life. *Psychological Bulletin*, 132(2). 151-179.
- Chodorow, N. (1989).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lark, M. S., & Ouellette, R., Powell, M.C., Milberg, S. (1987). Recipient's mood, relationship type, an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94-103
- Collins, N. L., & Feeney, B. C. (2004).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shape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Evidence from experimental and observational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 363-383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s.
- Cowen, E. L. (2000). Community psychology and routes to psychology wellness. In J. Rappaport & E. Seidman (Eds.), *Handbook of community psychology*. New York: Kluwer/Plenum.
- Cox, D. J. Sutphen, J. Borowitz, S. Dickens, M. N. (1994). Simple electromyographic Biofeedback treatment for chronic pediatric constipation/encopresis. *Biofeedback and Self Regulation*. 19.
- Cross, S., & Bacon, P., & Morris, M.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791-808.
- Cross, S.,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 Cross, S., & Morris, M. (2003). Getting to Know You: The Relational self-construal, relational cognition,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512-523.
- Cross, S., Bacon, P., & Morris, M.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791-808.
- Donahue E. M., Robins R. W., Roberts B. W., & John O. P. (1993) The Divided self: Concurrent and longitudinal effect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al roles on self-concept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34-845.
-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geland & Farber.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Eisenberg, N., Fabes, M. S., Schaller, M., & Miller, P. A. (1989). Sympathy and personal distress differences, and interrelations of indexe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44, 107-126
- Erikson, E. H. (1968a).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iske, S. & Taylor, M.(1991). *Social cognition*. NY: McGraw-Hill.
- Fiske, S. (1993). Controlling other people: The impact of power on stereotyping. *American Psychologist*, 48(6), 621-628.
- Foels, R., and Tomcho, T. J. (2005). Gender,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and collective self-esteem: Women and men are mostly the same. *Self and Identity*, 4, 213-225
- Frank, E., & Brandstatter, V. (2002). Approach vs. avoidance: Different types of commitment in intimat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208-221.
- Fromm, (1962) *Beyond the Chains of Illusion: My Encounter with Marx and Freud*. London: Abacus.
- Gilligan C. (1977), In a different Voice. Women's conceptions of the self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 481-517.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Harter, S. Waters P. L., Whitesell N. R. (1997) Lack of voice as a manifestation of false self-behavior among adolescents: The school setting as a stage upon which the drama of authenticity is enacted. *Educational Psychologist*. 32. 153-173
- Helgeson, V & Fritz, H (2000) The implications of unmitigated agency and unmitigated communion for domains of problem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68(6), 1031-1057.
- Higgins, E. T. (1989). Knowledge accessibility and activation: Subjectivity and suffering from unconscious sources. In J. S. Uleman & J. A. Bargh(Eds.), *Unintended thought* (pp.

- 75-115). New York: Guilford Press.
- Higgins, E. T. (1996c). The “self digest”: Self-knowledge serving self regulatory fun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062-1083.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636-654 .
- Hstins C. T., James M. & Stanto, M. D. (2001) Self concept differentiation across the adult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16, 643-654
- Jack, (1991.) *Silencing the self: Woman and depress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k, D., & Dill, D. (1992).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6, 97-106.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1. NY: Dover.
- Kashima, Y., Yamaguchi, S., Kim, U., Choi, S. C., Gelfand, M. J., & Yuki, M. (1995). Culture, gender, and self: A perspective from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25-937.
- Kihlstrom, J., & Cantor, N. (1984). Mental representations of the self.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7, (1-47). NY: Academic Press.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18-530
- Locke, K. (2000). Circumplex scales of interpersonal values: Reliability, validity, and applicability to interpersonal problems and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5, 249-267.
- Markus & Wurf.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 Markus H. & Cross S. E. (1990) The interpersonal self.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576-608 New York: Guilford Press
-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3-78.
- Markus, H., & Sentis, K. (1982). The self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pp41-70). Hillsdale, NJ: Erlbaum.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41-253.
- McConnell A. R., Renaud, J. M., Dean, K. K., & Green, S. P. (2005) Whose self is it anyway? Self-aspect control moderates the relation between self-complexity and well-be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1-18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norato, R. & Turner, J.(2001). The “I”, the “Me,” and the “Us”: The psychological group and self-concept maintenance and change.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pp.147-170) PA: Psychology Press.
- Oyserman, D., Coon, H., & Kimmel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1), 3-72.
- Parsons, T., & Bales, R. F.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 The Free Press
- Rogers, C. R.(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Rosenberg, S. (1997). Multiplicity of selves.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Fundamental issues* (pp.23-45),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edikides, C., Green, J. D., & Pinter, B. (2004). Self-protective memory. In D. R. Beike, J. M. Lampinen, & D. A. Behrend (Eds.). *Self and Memory*. (pp. 161-180), NY: Psychology Press.
- Sedikides, C., & Brewer, M. (2001).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Psychological Press.
- Sheldon, K., Ryan, R., Rawsthorne, L., & Hardi, B. (1997). Trait self and true self: Cross-role variation in the big-five personality traits and its relations with psychological authentic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a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380-1393.
- Steenkamp (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 78-90.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378-1391.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retational theory of psychiatry*. NY: W. W. Norton & Co.
- Sullivan, H. S. (1964). *The fusion of psychiatry and social science*. NY: W. W. Norton & Co.
- Triandis, H.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Weber, M. (1946). Class, status, and party. In C. Heller(Ed.), *Structured social inequality*, 14-24. NY: Macmillan.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4. 15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6. 18

##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Relational Self and Development of the Relational Self Scale among Korean Adults**

**Heejeong Bang Jinyoung Yun Ahyoung Kim Hyeja Cho Sookja Cho Hyun-jeo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erify the Relational Self Scale(RSS). Based on the theoretical assumptions which relational self is multi-dimensional and constructed in social contexts, 10 categories with 102 items were yielded. In the process of content analysis, item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by administering 102 items to korean adults, 31 items with 7 factors are extracted. The 7 factors are consisted of 'avoidance of relation', 'consciousness of others', 'agency', 'instrumental relation', 'empathy-care', 'perceived support from relation' and 'over-dependency to relation'. Nex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649 korean adults aged from 20's to 60's.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e RSS as a valid scale. The 7 factors of the RSS fitted well with men and women.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RSS was proved to be acceptable. The latent mea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relational self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en and women at 7 factors.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construct of relational self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relational self-construal, self-esteem and attachment to parent and intimacy person. This study has implication in that relational self is defined and assessed as multi-dimensional construct, and that by administering RSS it is possible to evaluate distinctive korean people's relational self.

*Key words : relational self scale, relational self, multi-dimensional construct, validation*

〈부록 1〉 관계적 자기 예비 척도 7요인 72문항

관계적 자기의 구성 영역	문항 내용
관계 의존 (9문항)	34. 나의 가치는 내가 중요한 사람과 얼마나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90. 나는 가까운 사람이 나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4. 나는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6. 타인과의 관계맺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74. 나는 상대방을 즐겁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느낀다.
	102. 가까운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72. 나는 다른 사람에 맞추어 나를 변화시킨다.
	37. 나는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싫어도 좋은 척 한다.
	41. 나는 관계 유지를 위해 진정한 내 모습을 감출 때가 있다.
타인의 시선 의식하기 (15문항)	2. 나는 사람들의 좋은 평가나 칭찬에 약하다.
	19. 나는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다.
	43.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쓴다.
	58. 나는 친밀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쓴다.
	66.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편이다.
	11.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주기를 원한다.
	83. 나는 내 언행이 다른 사람의 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신경을 쓴다.
	101.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어리석게 보일까봐 조심한다.
	55. 나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쓴다.
	84. 나는 나에게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한다.
	85.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신경을 많이 쓴다.
	71. 나는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럴듯한 핑계를 댈다.
	9.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자신을 돌아본다.
	99.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 거짓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
	15.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기만한다고 느낀다.
공감-배려 (7문항)	16. 나는 타인의 감정을 먼저 고려한다.
	13.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편이다.
	99.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애쓴다.
	56. 나는 타인의 입장에 쉽게 공감한다.
	95. 나는 친한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42.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챙겨주는 편이다.
	40. 나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과 있을 때 잘난체 하게 된다. (-)
관계에서의 지지 받기(9문항)	86. 나는 친밀한 관계에서 위로 받는다.
	56. 나는 친밀한 관계에서 힘을 얻는다.
	61. 나는 주변 사람들이 매우 정겹게 느껴진다.
	60. 나는 친밀한 관계에서 지지를 받는다.
	82. 나는 주변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89. 나는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에서 만족한다.
	73. 타인과의 관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63.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다.
48. 나는 관계를 통해 위안을 받을 때가 많다.	

<p>관계 무능감 (9문항)</p>	<p>20. 나는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잘 맺는 편이다(-).                      57. 나는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데 서투르다.                      23. 나는 타인들을 이해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다.                      22.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45. 나는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편이다.                      65. 나는 타인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다.                      47.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                      8. 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                      82. 나는 주변사람들 때문에 힘들다.</p>
<p>도구성 (9문항)</p>	<p>54. 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받는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36.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는 내가 관계를 맺을 때 기준이다.                      78. 곤경에 빠졌을 때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친구가 낫다.                      42. 나는 내 경력과 장래에 도움이 될 폭넓은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7. 소수의 사람을 깊이 사귀기보다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 낫다.                      93. 나는 유능하거나 파워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62. 나는 파워있는 사람과 친한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다                      97. 나는 유능하거나 파워있는 사람과 있을 때 힘이 난다.                      12. 나는 파워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p>
<p>주도성 (14문항)</p>	<p>28. 나는 나를 누구의 동생, 누구의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 싫다.                      77. 내 주변에는 내가 아니면 안되는 일들이 많다.                      38. 나는 의견이 나설 때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68.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킬지라도 나는 항상 내 주장을 명확하게 말한다.                      88.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관계 유지보다는 나 자신이 먼저이다.                      17.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의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35. 나는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좋은 관계유지를 위해 내 생각을 감춘다.(-)                      93. 나는 결정을 내릴 때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더 영향을 받는다. (-)                      96. 친밀한 관계에서 나는 주로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 내 생각을 바꾸는 편이다. (-)                      29. 나는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 보다는 내 자신을 변화시킨다. (-)                      30.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해치더라도 내 입장을 밝힌다.                      50.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한다. (-)                      5.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에 따른다. (-)                      25.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다. (-)</p>

〈부록 2〉 관계적 자기 예비 척도의 41문항의 구조계수 행렬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q35	<b>.82</b>	.13	-.03	.00	.02	.09	-.05
q2	<b>.67</b>	-.11	-.05	.05	-.01	-.07	.07
q22	<b>.59</b>	.03	-.05	.07	.06	-.06	.05
q10	<b>.56</b>	-.02	.15	-.11	.05	-.01	-.11
q29	<b>.40</b>	-.02	.26	-.05	.04	-.01	-.13
q14	<b>.37</b>	.02	.02	.17	-.00	-.28	.03
q34	-.01	<b>.77</b>	.15	.00	.02	-.02	-.04
q16	.15	<b>.70</b>	.04	.11	.11	.02	-.12
q41	.12	<b>.67</b>	.12	.10	-.07	-.11	-.01
q3	-.04	<b>.66</b>	.07	-.05	-.01	.03	.11
q21	.13	<b>.50</b>	-.17	-.01	-.02	-.06	-.13
q7	-.08	.10	<b>.76</b>	.11	-.18	.11	.11
q24	.01	.11	<b>.74</b>	.02	-.14	.10	-.04
q17	-.05	-.21	<b>.64</b>	.01	-.04	.02	.01
q39	.17	-.11	<b>.61</b>	-.11	-.06	-.03	.11
q1	-.04	.01	.11	<b>.79</b>	.02	-.01	.10
q19	-.03	.02	.15	<b>.64</b>	.10	.02	.02
q31	.16	-.10	.10	<b>.59</b>	.19	.13	.04
q11	.06	-.04	.01	<b>.54</b>	.21	.01	.11
q40	.16	.01	.13	.11	<b>.77</b>	.13	.00
q33	.03	-.12	.01	-.11	<b>.74</b>	-.18	.18
q15	-.04	-.01	.02	.19	<b>.70</b>	.05	.11
q37	.04	.02	.11	.03	<b>.68</b>	.04	.19
q28	-.02	.10	.07	-.01	<b>.57</b>	.02	-.18
q4	-.15	.15	.03	.10	<b>.40</b>	.00	-.14
q8	-.17	-.05	-.11	.02	<b>.38</b>	.11	.10
q25	.28	-.12	-.13	-.11	<b>.36</b>	.21	.13
q20	-.02	-.05	-.12	.22	-.17	<b>.85</b>	-.11
q30	.04	.02	.11	-.01	.18	<b>.84</b>	-.13
q13	-.04	.10	-.10	.10	.11	<b>.77</b>	-.12
q5	.06	.15	.01	-.05	-.13	<b>.69</b>	.11
q36	.10	-.05	.03	-.04	-.12	<b>.32</b>	.02
q9	.07	.11	.10	-.09	-.11	<b>-.33</b>	.02
q23	-.06	.16	.11	-.05	.01	.00	<b>.83</b>
q27	-.02	.01	-.03	-.04	.12	.09	<b>.80</b>
q38	-.01	-.02	.09	.03	.11	.01	<b>.66</b>
q32	-.02	-.03	.08	.10	-.05	.11	<b>.64</b>
q18	.11	-.10	.03	.17	.13	.14	<b>.59</b>
q12	-.05	-.05	-.07	.01	-.14	.20	<b>.41</b>
q6	.26	-.07	-.09	-.18	-.01	.04	<b>.40</b>
q26	.05	-.07	.06	.14	.07	-.17	<b>.28</b>

축소상관행렬의 고유치 총합 : 42.88  
누적 분산 비율 : 74%



〈부록 3〉 관계적 자기 최종 척도의 구조계수 행렬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q35	<b>.78</b>	.13	-.03	.00	.02	.09	-.05
q2	<b>.67</b>	-.11	-.05	.05	-.01	-.07	.07
q22	<b>.59</b>	.03	-.05	.07	.06	-.06	.05
q10	<b>.56</b>	-.02	.15	-.11	.05	-.01	-.11
q34	-.01	<b>.76</b>	.15	.00	.02	-.02	-.04
q16	.15	<b>.70</b>	.04	.11	.11	.02	-.12
q41	.12	<b>.68</b>	.12	.10	-.07	-.11	-.01
q3	-.04	<b>.66</b>	.07	-.05	-.01	.03	.11
q21	.13	<b>.50</b>	-.17	-.01	-.02	-.06	-.13
q7	-.08	.10	<b>.76</b>	.11	-.18	.11	.11
q24	.01	.11	<b>.71</b>	.02	-.14	.10	-.04
q17	-.05	-.21	<b>.64</b>	.01	-.04	.02	.01
q39	.17	-.11	<b>.61</b>	-.11	-.06	-.03	.11
q1	-.04	.01	.11	<b>.72</b>	.02	-.01	.10
q19	-.03	.02	.15	<b>.61</b>	.10	.02	.02
q31	.16	-.10	.10	<b>.59</b>	.19	.13	.04
q11	.06	-.04	.01	<b>.54</b>	.21	.01	.11
q40	.16	.01	.13	.11	<b>.75</b>	.13	.00
q33	.03	-.12	.01	-.11	<b>.71</b>	-.18	.18
q15	-.04	-.01	.02	.19	<b>.69</b>	.05	.11
q37	.04	.02	.11	.30	<b>.68</b>	.04	.19
q28	-.02	.10	.07	-.01	<b>.57</b>	.02	-.18
q20	-.02	-.05	-.12	.22	-.17	<b>.83</b>	-.11
q30	.04	.02	-.11	-.01	.18	<b>.81</b>	-.13
q13	-.04	.10	-.10	.10	.11	<b>.71</b>	-.12
q5	.06	.15	.01	-.05	-.13	<b>.69</b>	.11
q23	-.06	.16	.11	-.05	.01	.00	<b>.83</b>
q27	-.02	.01	.03	-.04	.12	-.09	<b>.78</b>
q38	-.01	-.02	.09	-.03	.11	.01	<b>.61</b>
q32	-.02	-.03	.08	.10	-.05	.11	<b>.60</b>
q18	.11	-.10	.03	.17	.13	.14	<b>.59</b>

축소상관행렬의 고유치 총합 : 42.88

누적 분산 비율 : 74%